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이해원*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대안 |
| II.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무용교육의 상실 | 참고문헌 |
| III. 디지털 전환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 Abstract |

I. 서론

교육은 동시대의 의식을 구성하고 정의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기 위한 실천적 과정이다. 교육이 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현시대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라는 커다란 교차점 가운데 미래를 읽어 내고 급변하는 교육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받아들이는 소양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 기술혁신과 산업 생태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비롯해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신경아, 2023, pp. 238-239).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과 교육에도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양상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무용교육에 있어서도 채수정, 서지혜(2023), 이주형, 문영(2023), 신경아(2023) 연구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의 온라인 영상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한 교육방법, 활용방안에 관련된 연구들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의 지속적인 전개와 발전에 따라 무용교육의 방안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무용교육의 양면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용교육은 무용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한 개인의 인식을 통해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이다. 모든 예술교육이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용교육은 신체를 도구로 하며 전인교육의 성격이 더해져 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육성하고 인간에게만 부여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교육하는 무용교육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득과 실이 될지에 대한 고찰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무용교육 패러다임 속에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환경 또는 위기를 미래 창조로 이끌어

*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moo-2004@hanmail.net

야 한다. 디지털 전환 속의 기술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양성하는 영역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와 인식이 필요하다(박진아, 2018, p. 49). 그렇다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현시대의 상황에 대처해 따라가는 것이 아닌 현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사고와 방법들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일 것이다.

디지털화가 보편화 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능력과 역량은 상상력이며 비판적 사고이다. 즉,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이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인간이 가진 이해의 방식을 새롭게 탐구해야 하며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무용교육의 상실점을 논의하고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무용교육의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무용교육의 미래 실천적인 부분을 분석하여 대안점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인 근거이론에 기반한 문헌 연구로 공식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단행본, 학술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수집된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적 범주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의 ‘파르마콘’ 용어의 범주에서 비롯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과 무용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분석을 통해 먼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무용교육의 상실점을 논의하고 둘째로 무용교육의 미래 실천인 부분을 분석해 셋째로 이를 바탕으로 대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무용교육의 상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 삶의 방식과 인식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교육시스템에도 급격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인공지능의 도래로 대변되는 기술사회에는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펼쳐질 수 있으며(정옥희, 2023, p. 288), 인공지능의 기술에 따른 인간의 능력과 이해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많은 것들을 얻으며 모든 것에서 편리함과 유용함을 얻겠지만 반면, 우리가 갖는 최대의 상실은 인간다움일 것이다. 인간다움이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의식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디지털 도래 속에 인간의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인간다운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전제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를 그려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진화되는 삶 속에서 대변해 줄 수 없는 부분은 감정적인 행위 부분일 것이다. 정옥희(2023, p. 288)는 디지털 전환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술적 지각 체험이 인간의 의식을 되살리는 역할이라고 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행위들로 감정적인 부분을 살리고 전인교육의 본질인 예술교육이 디지털 전환의 현대에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예술교육 중 무용교육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표현활동으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 철학을 주체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교육이다. 무용은 문화에서 성장하고 영향을 미치며, 무용교육은 시대적 가치, 정치 경제적 범위와 밀접하게 관계 맺어지는 분야이다(한혜리, 2022, pp. 9-10). 개인의 창의성과 문화는 무용을 만들고 문화와 사회에 무용이 속하게 되면 무용은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고 영향을 주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이동되는지 보여준다. 즉, 우리를 한 국가, 한 세대, 한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Hanna 저, 김두련, 박은규 역, 2006, pp. 26-27). 현재 우리는 무용교육을 통해

개인의 감성을 표현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며 창의적, 감성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무용교육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가치는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나아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오랜 전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혜리(2022)가 말한 것처럼 무용교육은 시대적 가치, 정치 경제적 범위와 밀접하게 맺어지는 분야로 현대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에 무용교육은 기존의 방법에서 변화되고 새로움을 갖게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방법이 변화되어도 무용교육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는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용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전인교육의 장이며 사고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기초 예술교육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움은 새로움을 발전시키는 아동에게 무용교육을 통해 새로움을 구축하고 경험을 부여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은 잘 사용하면 득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실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새로움을 경험에 의해 받아들인다면 무용교육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에 의한 교육이다. 인간 형성의 기초 교육인 무용교육은 급격히 변화되는 디지털 활용과 기술 측면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을 잃지 않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 된다. 디지털 기술을 따르기 전 무용교육의 본질을 살리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먼저이며 이러한 사고적 변화는 인간다움이라는 상실점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무용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탐구해 낼 수 있다.

III. 디지털 전환 무용교육의 실천 분석

이 고찰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무용교육의 상실점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무용교육은 인간 육성에 본질적인 교육으로 인간의 감각과 감정, 가치, 이상, 신념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다. Hanna는 무용교육은 배우는 아동들에게 무용의 경험과 다른 지식 들을 제공하고, 다른 일반교양 과목에서 학습을 강화하고, 삶의 다른 영역들에 적용된다 라고 했다(김두련, 박은규 역, 2006, p. 41). 기초 예술교육으로서 개인을 비롯해 사회에 인간 행위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교육의 효과는 인지학습 및 정신적 각성, 사회성 향상, 인성 계발, 시민의식 향상, 미학적 감상 능력 계발, 사업적 창의성 계발까지 넓은 범위에서 영향력을 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더불어 한혜리(2022, p. 13)는 “무용의 대상은 심리학에서 인간 조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다. 변화하는 사회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무용교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교육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 창조로서 디지털 전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 무용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새로운 심미성 배양과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무용교육의 새로운 심미성

무용교육에서 인간과 디지털 기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의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업의 증가뿐 아니라 메타버스, 온라인 영상 플랫폼 서비스,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업들의 연구가 증가 되었고 팬데믹이 사라진 이 시점에도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은 지속되고 거듭 발전해 가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무용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분의 연구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것으로 이주형과 문영(2023)은 무용교육 콘텐츠 적용성 탐색으로 아바타와 아바타 소품제작, 퍼포먼스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메타버스에 대한 학습자 효과로 실재감, 현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 세계보다 훨씬 고강도의 몰입과 리미노이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예진, 문영(2023)은 가상과 현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인 메타버스는 창의적 움직임 표현 경험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HDM기기, 햅틱 장치 등 하드웨어 장치 사용과 별도의 모션이 필요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무용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온라인 플랫폼 무용교육의 콘텐츠 구성,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다양한 음악 사용 등 무용교육 콘텐츠 노출이 필요하다는 사례분석 연구(김혜미, 최은지, 2023), 무용교육의 영상 콘텐츠 개발요소 탐색으로 운영방식, 공간활용, 매체활용, 몰입요소 등 구성의 요소를 도출했고(김예진, 윤혜선, 2023),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재정, 2023) 등이다. 이처럼 무용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방법의 연구는 디지털 매체에 국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술교육 측면을 보더라도 미술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미술교육의 디지털 감성을 주장하거나(박수정 등, 2019)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전통적인 미학 이론을 포함하자는 내용(안인기, 2017; 박유신, 조미라, 2019), 미술교육에서 AI, VR, AR, 빅데이터 등의 첨단매체의 특성과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분석(이지연, 2020),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이재영, 임지영, 2022)한 연구들이 있다. 미술교육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방법 제안에 앞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미술교육 내용의 방향성,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문학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빚어낸 '기술적 무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성적 지각'을 문학 수용방법론으로 주장하고(호창수, 2020), 트랜스 미디어적 문학 공부와 교육을 통해 창의력 배양의 가능성 제시(임형택, 2021), 문학교육의 실질적 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시쓰기'수업 모델 제안(구연정, 임원석, 2021),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 방법론(전준현, 김경모, 2023) 등의 미술교육과 같은 연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교육 역시 계속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 무용교육의 제한된 연구와 디지털 매체 활용방법에 국한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무용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것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미래 창조를 이루기 위함에 있어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살리면서 실천하고자 할 때 인간과 기술과의 상호작용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무용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기 전에 디지털 기술에 인간다움을 어떻게 담아 무용교육의 본질적인 교육의 목표를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용교육의 본질 중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새롭게 표현되고 아름다움을 식별하고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심미성 배양이 최우선적인 일차적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리터러시와 상상력 개발

디지털화되어가는 미래에 대한 창조가 강조되어가는 이 시점에 리터러시는 미래탐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무용교육에서 리터러시는 댄스 리터러시로 무용의 소양이며 텍스트를 읽고 사용하는 것으로 무용교육의 목표로 보고 있다. 신상미(2017, p. 33)에 따르면 댄스 리터러시 교육은 인간이 창조한 춤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리터러시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개개인의 개성과 사회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 했다. 위와 같이 무용교육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무용교육의 목표로서 발달시켜야 하며 리터러시 교육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무용교육의 방향이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리터러시의 종류는 정보 리터러시, 문자 리터러시, 시각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코드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장치들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들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각종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하는 개념의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장치들을 원활하게 다루고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 다(박종현, 2023).

교육적인 방향에서 디지털과의 상호작용, 소통,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무용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게 해준다. 이것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식적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인기(2020)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리터러시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시각의 미적 탐구와 행위에 대한 고찰이 미래를 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학자들의 논제가 다양하지만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교육에서 무용의 소양으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개념화하고 있다. 민현주(2021)에 따르면 현시점의 댄스 리터러시는 문자, 기능적, 비판적, 디지털 등 여러 각도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공통 능력 자질로 보아야 한다고 제기한다. 이지설(2023)은 초등학생의 댄스 경험 사례를 통해 댄스 리터러시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용을 발견하고 움직임 표현을 변화시켜 구현 강도를 증가시키고 창조적 발현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결과로 자기효능감 향상 등 내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현정(2021)은 무용을 통한 텍스트를 구성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트랜스 리터러시 수업사례에서 자기-주체성의 본질이 통합되고 확산되며 상호작용적 성격을 가진 자기표현과 표현적 개념을 제공한다고 했다. 더불어 신상미(2017)는 교육 인류학적 패러다임은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창조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인간다움을 살리는 무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 창조 무용교육과 리터러시의 세부적 방향성과 수업모형은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공간에서 인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무용교육의 본질과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방향성을 재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용교육의 본질인 창의력과 상상력 계발 부분을 배제 시켜 서도 안될 것이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움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큰 상실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식으로 이야기했었다. 무용교육에 있어 인간만이 가진 의식 중 상상력이 배제되어버린다면 무용교육의 본질성을 잃는 것이며 인간 육성의 기본적 가치를 놓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현시점에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시급한 것인지 인간 창조의 상상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무용교육의 딜레마일 수 있다. 하지만 무용교육의 본질성을 살리는 미래 창조를 위해 무용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의 활용과 상상력 계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IV. 결론 및 대안

디지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육은 미래 창조의 영역으로 디지털 기기의 다양성과 편리함 속에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디지털화된 교육의 환경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옥희(2023, p. 291)는 디지털로 연결되는 효율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약이 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활용들에 대한 대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무용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가 제기하게 해준다. 이 고찰에서 본 연구자는 시대의 새로운 환경, 위기를 새로운 미래 창조 영역으로 보자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최대 상실점을 인간다움으로 보았으며 인간다움을 끌고 가기 위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기르는 전인교육인 무용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매체 활용방법 제안에 앞서 무용교육의 본질인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 창조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대안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기회로 삼고 무용교육의 본질성을 살리기 위한 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감성이 필요하다. 감성은 감정의 경험에 따른 새로운 앎을 가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박수정 등, 2019, p. 7). 감성은 외부를 느끼는 감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각은 심미성을 포함한 지각, 공감 능력 등이 있다. 무용교육은 심미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 철학을 주제적으로 나타나게 해주며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해준다. 심미적 경험은 심미성을 통해서 온전히 향유되는데, 심미성은 미적 경험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느낀 것을 주제적 판단으로 느끼는 것이며 개인적인 미적 감성을 만들어 낸다(박수정 등, 2022, p. 135). 현시대의 심미성은 기존의 심미성과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래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더 확장되고 세분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정보와 감각을 연계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감성에도 영향을 주며 심미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심미성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심미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심미성은 디지털 세계에서 나만의 미적 체험으로 얻어지는 감각 지각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통합

과 융합 등으로 어우러지는 디지털의 세계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각, 그리고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감각들의 비판적 사고가 부여된 심미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각 자각, 정체성 자각, 비판적 사고가 부여된 새로운 심미성을 디지털 심미성이라 제안해 본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무용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필요에 의한 무용교육의 하나의 대안으로 디지털 심미성 배양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미래탐구의 무용교육 수단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의 활용으로 연계 교육을 제시한다. 연계 교육은 무용과 학제 간 융합 프로그램으로 댄스 리터러시와 교과 간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임수진, 문영(2021)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예술과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해 인지성, 감수성, 신체성이 함양된 댄스 리터러시의 함양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댄스 리터러시의 교육 효과가 학제 간 연계 수업에도 확장되어 무용교육의 가치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무용교육은 득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댄스 리터러시와 연계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상상력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교육에서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을 몸으로 체화시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표현활동에 의해 미적인 체험과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계발된다(임수진, 문영, 2021, p. 167). 따라서 연계 교육에 따른 상상력은 디지털 세계에서 감각과 학문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롭게 배양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심미성과 상상력을 포함한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 연계 교육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용교육의 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미래 창조를 위한 무용교육의 본질성을 살릴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인간다움을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미래 창조를 보여주며 디지털 전환에 필요에 의한 교육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참고문헌

- Hanna, J, L(2006). **무용과교육** (김두련, 박은규 역). 정담미디어. (원저출판 1999).
- 고현정(2021). 트랜스리터러시 비대면 무용교육 사례를 통한 디지털 정체성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19-29.
- 김예진, 윤혜선(2023). 대학 무용전공자의 온라인 무용교육 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40(4), 75-94.
- 김혜미, 최은지(2023). 온라인 플랫폼 무용 교육 콘텐츠 활용 경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2(6), 637-650.
- 구연정, 임원석(2021). 디지털 시대의 문학교육과 매체융합적수업모델 -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문학 텍스트의 재매개와 '다시쓰기'. **독일언어문학**, 91, 417-438.
- 민현주(2021). 댄스 리터러시 논의의 맥락 및 과제. **한국체육철학회지**, 29(4), 111-122.
- 박수정, 송명길, 공완욱, 이미희, 이하림, 전수현(2022).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 고찰: 심미적 감성, 정체성,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71, 127-166.
- 박수정, 이미희, 전수현, 이하림, 송명길, 이주연(2019). 포스트휴먼 시대 디지털 감성으로 접근하는 미술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59, 1-36.
- 박유신, 조미라(2017). 미래사회를 위한 포스트휴먼 교육. **미술교육논총**, 31(2), 179-216.
- 박진아(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무용예술의 발전 가능성 탐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8(1), 37-52.
- 신경아(2023). 공연예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적 과제 탐색.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3), 237-251.
- 신상미(2015).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의 교육인류학적 패러다임.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11, 25-52.
- 이재영, 임지영(2022). 뉴노멀 시대 비대면 실시간 교육에 대한 HRD 담당자 인식과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5(1), 81-110.
- 이재정(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용교육 콘텐츠 방향 탐색. **인문사회21**, 14(3), 255-266.
- 이주형, 문영(2023). 메타버스를 활용한 무용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1), 161-176.
- 이지설(2023). 초등학생의 댄스게임 경험과 댄스리터러시 함양. **한국체육철학회지**, 31(2), 71-87.
- 이지영(2020). 미래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미술교육이 쟁점 탐구. **조형교육**, 75, 271-291.
- 임수진, 문영(2021).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대학 교양강좌에의 적용 및 효과 탐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1), 157-172.
- 임형택(2021). 트랜스미디어적인 문학 공부와 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 개발 방법론으로서-. **인문과학**, 80, 227-256.
- 안인기(2017).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으로 본 미술교육의 문제. **미술과 교육**, 18(4), 1-17.
- 안인기(2020). 포스트휴먼 주체와 기술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 낯선 아름다움의 초대. **미술교육연구**

논총, 63, 179-203.

위미나(2023). 메타버스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경험 의미 탐색. **한국체육무용과학회**, 3(2), 61-72.

전준현, 김경모(2023). 메타버스 시대의 인문학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성어문학**, 48, 359-396.

정예진, 문영(2023).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의 몸 기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81(3), 283-300.

정옥희(2023). 디지털 전환 미술교육의 파르마콘적 실천 딜레마. **예술교육연구**, 21(2), 287-304.

채수정, 서지혜(2023). 유튜브(YouTube) 영상 콘텐츠 분석: 국내무용 영상을 중심으로. **지능정보 연구**, 29(4), 1-12.

한혜리(2022). 무용 교과교육의 개념과 가치. **한국무용교육학회**, 33(4), 5-18.

호창수(2020). 디지털 시대 문학교육 원리로서 감성적 지각. **국어교육연구**, 45, 159-187.

박종현(2023. 08. 31.). “리터러시의 뜻, 중요성, 종류” 과학커뮤니티 박종현. <<http://naver.me/5mB8Q6tR>, 2024. 02. 05.>.

논문투고일 2024. 02. 14.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10.

Analysis of Dance Education Practices Following Digital Transformation

Lee, Haewon

Lecturer,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loss of dance education that digital transformation will bring, analyze the future practical aspects of dance educ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positively lead to the uniqueness of dance education due to digital technology change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where digitalization is becoming widespread and accelerating, the humane abilities that humans possess are imagination and critical thinking. Therefore, this study viewed the new environment and crisis of the times as a new future creation in that area and discussed the greatest loss of digital transformation from humanity. Before suggesting ways to utilize media for dance education following digital transformation, I suggest that cultivating new aesthetics and developing digital dance literacy and imagination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practical measures to advance to a new future creative education without losing the human nature of dance education.

Keywords: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Aesthetic Impression(심미성), Digital Dance Literacy(디지털 댄스 리터러시), Development of Imagination(상상력 계발)